

三國志에 나타난 인물 關羽의 性格

韓亨洙*

< 목 차 >

1. 서론
2. 인물론 배경 및 분석틀
 - 2.1 성격유형론과 삼국지 인물
 - 2.2 내향형과 외향형
 - 2.3 사고·감정·감각·직관에 관련한 성격유형과 삼국지 인물
 - 2.4 계 성격유형의 특징
3. 성격유형론으로 분석한 인물 관우
 - 3.1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특징
 - 3.2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장점
 - 3.3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단점
4. 결론

1. 서론

사회가 바뀌면 무릇 특정 사건을 비롯해 인물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평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적용기준과 분석 도구 등이 활용되면서 평가의 양상도 달라진다. 삼국지 역시 이러한 경향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삼국시대는 중국역사의 전체적 흐름에서 길지 않은 시기이나 그 시대적 인지도와 이해도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높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소위 삼국지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그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들에

* 서울시立大學校 名譽教授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가 바뀌면서 재평가되어 왔고 또한 그 인물 탐구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오고 있다. 가령 조조를 보더라도 그는 오랫동안 식자들 사이에 폄하했던 촉한정통론이라는 명분론에 의해 한조 정권을 붕괴시킨 간적으로 혹평 받았다. 하지만 봉건왕조가 무너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는 부패하고 무능한 왕조를 개혁시킨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치적을 통해 리더십이 재조명되는가 하면, 평소 그가 남겼던 시, 서간문 등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인물됨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작들이 나오고 있다. 제갈량의 경우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꿰뚫어본 현신의 전범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의 육출기산(六出祁山)의 북벌이 실은 지키기 위한 공격(以攻爲守)이었다는 냉정한 재평가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마의를 자기 통제의 승부사로 인물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조조, 제갈량, 유비, 손권 등 삼국지의 다른 주역들에 비해 심층적인 탐구 경향에서 다소 벼거나 있던 인물 관우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로 한다. 관우는 투철한 ‘충(忠)’ 과 ‘의(義)’를 지향한 행동양식으로 삼국지 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인물이며 더욱이 신(神)으로까지 추앙받아온 존재이다.

관우를 이르는 대표적인 ‘의협과 충절의 사나이’로 꼽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충과 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은 정신적 의미, 의는 행동양식으로의 발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충과 의는 본질은 같을 수 있으나 상충되는 부분도 있게 마련이며 충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덕목이라고 하면 의는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행동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

이 지평에서 관우는 충과 의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유비라는 한조재흥을 이루려는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민생이 도탄에 빠지도록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에 대하여 분연히 맞서는 면모를 닦아 온 그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모든 것을 던지는 온

1) 나채훈(2012), 《관우의 의리론》, 추수밭.

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관우가 오늘날 ‘충의의 화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인물 관우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까? 본고는 바로 그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인간 개체가 모두 다 제각각이듯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성격 역시 어떠한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여기에서 인물 관우의 성격을 분석해 보려는 작업은 관우가 어떠한 심리적 토양 속에서 그의 행동 양식이 발현되었느냐를 살펴보려는 데 그 단초가 있다. 나아가서 관우의 삶을 추동하는 그의 성격의 특징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그 성격의 장점은 어떻게 발현되었고 단점은 어찌 드러워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물 관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그의 삶의 궤적에 접근해 보고자 함이다.

2. 인물론 배경 및 분석틀

여기에서 인물 관우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²⁾의 성격유형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칼 융은 성격유형론에서 인간의 성격을 크게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보았으며 내향형과 외향형의 바탕에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기능이 구현되어 어떠한 성격유형으로 발현되는 지를 제시하기도 있다.

다만 이 이론을 활용한 유용한 분석 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적용은 본고에서는 배제하였다. MBTI는 분명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자기보고의 방식이란 특징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1800년 이전의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분석도구는 오로지 기록에

2) 이부영 편, 의학개론(I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 167.

의존하여 분석자가 대상자의 심정으로 평가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분석자의 주관 개입으로 상당한 오류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2.1 성격유형론과 삼국지 인물

칼 융의 제 학설³⁾은 정신병리현상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여러 보편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20년대부터 동양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칼 융은 중국학자 리하르트 빌헬름(Richard Wilhelm)과 1929년 도교(道敎) 경전에 관한 공동연구 출간으로부터 티베트 밀교(密敎)의 사서(死書)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주역(周易), 불교(佛敎), 1943년 발표한 동양적 명상의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연구 성과의 토대는 그의 분석심리학의 원형론과 자기실현에 관한 경험적 발견을 지지하고 확인해 준 것이다.

특히 동양적 정신의 경지를 높이 산 칼 융의 성격유형론이 나오게 된 그 사상의 중심을 조명하여 서양인의 거울로 삼는데 역점을 두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심리학적 유형론(Psychologische Typen)은 이제 서양인의 성격 이해뿐만 아니라 동양인의 성격분석에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칼 융은 심리학적 유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첫째, 일반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특징에 따라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로 구분하였고 둘째, 정신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 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우세한 기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⁴⁾

3) C.G.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융기본저작집(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2007.

4) C.G. Jung, *Psychological Types*, London and Henley :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 330-407.

2.2 내향형과 외향형

칼 용은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첫째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으로 내향적 태도, 외향적 태도를 말하며, 둘째는 정신의 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 적응 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유형이 있다.

흔히 내향적 태도는 수줍고 비사교적인 태도, 외향적인 태도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의 태도를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통속적인 해석이고, 단지 그 개념의 단면만을 지적한 것이다. 내향적, 외향적 태도의 구별은 그 개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태도가 주체보다 객체를 중요시하면 그는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주로 객체일 때 그의 태도는 외향적이며, 그 사람의 판단기준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객체보다 주체이면 그의 태도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1) 외향형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이 주체의 의견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될 때 이를 외향적 태도라 하고, 이런 외향적 태도가 습성화되어 그의 생활의 일정한 특징을 이루면 그를 외향형이라 부른다. 누구나 살아나가자면 외계가 제공해 주는 자료들에 따라 자기 태도를 결정하지만 그 결정하는 양식이나 동기가 다르며, 외향형에서는 늘 객체에 맞추고 객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해 가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외향형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추구하여 당장 그때그때 장래성이 있는 직업을 택하거나, 당장 주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한다. 그

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p.126.

는 주위의 기대가 있는 한 변혁을 과감하게 실천하지만, 그것이 주위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면 변혁을 피한다. 그는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자유스럽게 주위 환경에 작용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작용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반면 외향형은 외향적인 태도가 일방적으로 극단화될 때 자기의 주체를 소홀히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주관적인 사실로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은 신체이다. 이것은 그에게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향적 태도가 너무 지나치면 신체가 고통을 받는데, 대개 외향형은 이상한 신체 감각이 나타나야 비로소 관심을 가진다. 또한 외향형의 성격상 모든 것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보는 버릇이 있으므로 신체 증상도 그렇게 본다.

2) 내향형

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한 것에 의거해서 사물을 본다. 내향적인 의식의 태도에도 물론 외적인 조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만 언제나 그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것은 주관적인 속성이다.

외향형에 내향적 경향이 있듯이 내향형에도 외향적 경향이 있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내향적 태도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내향적 태도가 극도에 이르러 이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경향이 의식에서 배제되면, 무의식에는 의식의 경향과는 상반된 외향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자아는 이와 같은 무의식의 외향적 관심의 제물이 되거나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자아의 팽창으로 인한 엄청난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외향과 내향 두 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서로를 관조해 보는 것은 어느 유형의 편견으로도 물들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뛰어넘을 제 3의 시점에서 양측 이야기를 종합하는 수밖에 없는데, 관찰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기술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유형에 따르는 편견이나 선입

관념을 극소로 줄이려면 각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경향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사고, 감정, 감각, 직관에 관련한 성격유형과 삼국지 인물

상술한 일반적 유형은 다시 4가지의 기능, 즉 사고(思考, thinking), 감정(感情, feeling), 감각(感覺, sensation), 직관(直觀, intuition)으로 구분된다. 칼 융은 정신의 네 가지 기능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기능을 중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사고와 감정의 기능을 합리적 기능, 감각과 직관의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라 구분하였다.⁶⁾

이 네 기능은 또한 각기 외적으로 향하려는 성향이 있음에 따라 외향형과 내적으로 향하려는 성향에 따라 내향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1) 사고형(思考, Thinking)

사고란 주어진 관념내용을 그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정신 기능이다.

사고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하나는 주관적인,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원천에서 주어지고, 다른 하나는 감각을 통한 지각으로써 전달되는 객관적 사항에서 주어진다. 이것이 내향적 사고와 외향적 사고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1)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사고형은 네 가지 정신기능 가운데 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

6) 이부영, 전거서, 1998, p. 165.

는 사고의 기능에 의하여 생활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정부기관이나 상사의 행정가 또는 사무가, 법관, 과학자에게 흔히 나타난다. 이 유형의 인물은 단체의 조직에 능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누구나가 수궁할 수 있는 진위의 판가름을 명쾌하게 내려 이성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외향적 사고형 인물로는 대세를 잡았으나 권위적인 성격으로 좌절하고만 화북의 선두주자 원소(袁紹), 독선적인 성격으로 비운을 불러온 만부부당의 용장 장비(張飛),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동오의 중신 장소(張昭) 등을 들 수 있다.

(2) 내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은 객관적 사실보다도 이념이나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향적 사고형은 이념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결코 범용한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험하다거나 선동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때문에 이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외향형으로부터는 '이상론자'나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로 불리기 쉽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내향적 사고형 인물로는 분석적이고 치밀한 성격으로 난세의 평정을 주도했던 현사 순욱(荀彧), 신념과 냉철한 성격으로 공정, 공평, 공개의 일세의 뛰어난 정치가 제갈량(諸葛亮), 형주를 탈환하고야만 주도면밀한 성격의 동오 무장 여몽(呂蒙) 등을 들 수 있다.

2) 감정형(感情, Feeling)

칼 용은 감정을 표상(表象)이나 지각의 2차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았다. 감정은 무엇보다도 자아와 주어진 내용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든가 돌려보내든가 하는 일정한 가치측

쾌, 불쾌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또한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의식의 내용이나 일시적인 지각과 관계없이 따로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⁷⁾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기능도 외향적 감정과 내향적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향적 감정에 있어서는 객체적 기준이 그 감정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향적 감정에서는 주체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또한 감정이 여성의 심리의 가시적인 특징인 만큼 감정형은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여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칼 융은 지적하고 있다.

(1) 외향적 감정형

이 유형에서는 감정의 기능이 그의 생활의 주요한 근간이 되며, 그의 감정은 객체에 기준을 둔 외향적 감정이다. 이들의 감정은 객관적 상황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순응하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 훈련된다.

외향적 감정형의 인물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쉽게 인생을 꾸려 나간다. 그러나 외향적 감정이 일방적으로 이용될 때 이 감정의 싱싱한 활기는 사라지게 된다. 즉, 무의식의 억제되고 있던 사고의 기능으로 인해 기존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감정이 억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외향적 감정형 인물로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행정력까지 겸비했던 위나라 장수 하후돈(夏侯惇), 저돌적인 성격으로 술한 전공을 세웠던 선봉장 하후연(夏侯淵), 전형적인 무인의 성격으로 굴곡진 삶을 산 풍운아 마초(馬超) 등을 들 수 있다.

(2) 내향적 감정형

이 인물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는 '잔잔한 물은 깊다'라는 격언일 것이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대개 조용하고 사귀기가 힘들며 이해하기 어렵다. 흔히 어린애 같은 얼굴이나 통속적인 가면 뒤에 숨어 있거나 또 흔히 애수어린

7) C.G Jung, 전제서, G.W. Bd. 6, p. 467, Definition.

기질을 지니고 있다.⁸⁾

내향적 감정형은 무척 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므로 밖으로 표현되거나 객체에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분화된 내향적 감정은 무엇이 내적으로 진실로 중요한 요소인가를 볼 줄 안다.

그들은 결코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돋우어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차지도 덤지도 않은 '서늘한' 느낌을 준다. 내향적 감정형의 태도는 다소 경화되어 마치 타인이나 객관적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배척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내향적 감정형의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그들은 자기 안에 깊은 공감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외향형의 눈에 '차가운 사람', '몰인정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내향적 감정형 인물로는 형주를 지배했으나 우유부단함으로 빛을 잃은 세력균형자 유표(劉表)와 조조의 휘하에서 자신이 중용받지 못함을 알아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 실권을 장악하여 향후 진나라 창업의 기틀을 세웠던 사마의(司馬懿) 등이 있다.

3) 감각형(感覺, Sensation)

감각이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능이다. 지각(知覺)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감정과는 순수한 의미에서 별개의 독립된 기능이다. 감각은 사고나 감정처럼 이성의 법칙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합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감각형 역시 외향적 감각과 내향적 감각이 있는데, 물론 감각이 객체와 외부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향적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현저하게 변하게 된다. 외향적 감각은 현시적이고 뚜렷이 나타나는 사물의 존재를 파악하는 반면 내향적 감각은 객체를 주관적 체험을 통해 걸러서

8) C.G Jung, 전게서, G.W. Bd. 6, p. 423.

인지하게 된다고 칼 응은 말하고 있다.⁹⁾

(1)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감각형은 한 마디로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객관적 사실을 감득하는 능력이 비상하여 현실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 나간다. 실무에 밝은 행정가, 사업가, 기술자에서 이런 성격유형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식가일 수 있고 유쾌한 탐미주의자일 수 있으나 이들이 기계, 숫자, 물질 등의 객체에 몰두하게 되면 그 객체에 빠져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외향적 감각형 인물로는 죽대없는 성격으로 현실적인 이익에만 집착했던 소인배 여포(呂布), 능소능대한 성격으로 뛰어난 현실감각을 펼친 책사 가후(賈詡), 기민한 성격으로 촉나라를 멸한 승부사 등애(鄧艾) 등을 들 수 있다.

(2)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은 외향적 감각형과는 달리 객관적 자극에 의해 생긴 주관적 감각 부분에 따라 그 행위가 결정된다.

객체 자체는 그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며. 그는 사람이나 풍경의 모든 빛깔, 그늘, 형태 등을 세밀한 곳까지 지각하여 그것을 그의 주체로 흡수하는 성향을 보인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내향적 감각형 인물로는 과감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함비전투를 승리로 이끈 맹장 장료(張遼), 공사를 분명히 하는 성격으로 위기를 타개했던 기동타격대장 서황(徐晃), 과단성 있고 유연한 성격으로 동오의 위기를 구한 뛰어난 외교가 노숙(魯肅) 등이 있다.

www.kci.go.kr

9) C.G Jung, 전제서, G.W. Bd. 6, p. 430.

4) 직관형 (直觀, Intuition)

직관이란 '무의식적 방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이라고 칼 융은 말하였다. 그리고 감각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인식기능이다. 직관 내용은 감각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고나 감정 내용처럼 유도되거나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직관형 가운데 외향적 직관형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 가운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내향적 직관형은 이에 비해 내적인 객체, 즉 무의식의 요소에 그 시선이 향한다. 이에 대해 칼 융은 '내적인 객체는 내향적 인식에 있어서, 외적인 경험에서는 만날 수 없는 무의식의 내용, 궁극에 가서 집단적 무의식을 이루는 사물의 주관적 상들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1) 외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형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객관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기업가, 상인, 신문기자, 정치가 같은 경우가 이 유형에 적합하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현재 남에게 받고 있는 평가에는 개의치 않고 직관적 인식에 확고하게 받을 디딘 채 이들을 후원하며, 이들의 숨은 능력을 성장하게 한다. 그리하여 대상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한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게 된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외향적 직관형 인물로는 앞을 내다 보았으나 독선적인 성격으로 무너진 포악한 군웅 동탁(董卓), 미래지향적 성격으로 주군의 가능성을 현실화한 기재 곽가(郭嘉), 창조적인 성격으로 동오의 창업기틀을 마련한 기린아 주유(周瑜) 등을 들 수 있다.

(2) 내향적 직관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향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종교적 예언가, 이른바 선지자들이 이 유형의 사람이며 예술가나 시인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그는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초속의 세계를 표현할 것이며, 객관적인 미적 감각과는 거리가 먼 기괴한 내용으로 차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번득이는 진리는 현세를 넘어 무궁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내향적 직관형 인물로는 타인의 잠재력을 발현시킨 창조적 성격의 모신 방통(龐統), 안하무인의 성격으로 스스로를 펼치지 못한 외로운 무골 위연(魏延), 과감하면서 침착한 성격으로 신의가 돋보였던 무인 태사자(太史慈) 등을 들 수 있다.

2.4 제 성격유형의 특징¹⁰⁾

앞에서 언급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기능에 관련한 8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향형의 4가지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외향적 사고형은 현실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또한 설득력이 뛰어나고 호전적인 기질이 있어 강인하고 냉정하며,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감정형은 다른 사람에 기준을 두어 생활하는 유형으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감각형은 객관적 사실을 감득해 내는 능력이 발달하였으며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행동하고 또한 임기응변에 강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직관형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성을 내다볼 줄 아는 미래예시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 C.G.Jung(1979), 김종석(2010)을 토대로 재구성함.

다음으로 내향형의 4가지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내향적 사고형은 사고의 판단기준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이념이나 관념을 중시하여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며 분석적, 논리적인 면으로 치밀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일처리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감정형은 외관상으로 조용하고 무척 여성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또한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양보를 많이 하며 관용을 잘 베풀고 겸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감각형은 외부의 자극이나 객체의 현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반응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잘 선택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직관형은 직관 기능이 주로 내부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이 강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8가지 성격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성격유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표1>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8가지 성격유형의 장점과 단점

인물형의 성격 성격의 기능	장점	단점
외향적 사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고 확고한 태도로 추진할 수 있음 ·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사실이나 합리성에 치우치고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음. · 권력 지향적 성향이 강하여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음.
외향적 감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 포용력이 뛰어나서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인물형의 성격 성격의 기능	장점	단점
외향적 감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외교·경제 등의 정책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쉬움.
외향적 직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이성적으로 자기의 인식을 정리 및 저장할 거름이 없으며 한 곳에 꾸준히 머무르지 못하는 성향이 있음.
내향적 사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이상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으로 치밀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목적인 헌신이나 계산이 들어맞지 않는 행동으로 편협하다는 인상을 받게 됨. ·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의견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음.
내향적 감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갈등을 잘 조정하고 융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 주위 사람들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외부로 표출하기 보다는 내부로 숨기는 편임. · 일처리에 있어서는 너무 자세하고 세밀한 성격 때문에 일을 효과적으로 끝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인물형의 성격 성격의 기능	장점	단점
내향적 감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어난 감각으로 유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이며 상황 순응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함. · 구체적인 현실에 지나치게 매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원시안적 안목이 요구됨.
내향적 직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잘 파악할 줄 알아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등용시키는 인사정책을 펼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감각이 극도로 결여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개성이 강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함.

3. 성격유형론으로 분석한 인물 관우

여기서는 칼 용의 성격유형론을 인물론 배경 및 분석틀로 적용하여 인물 관우의 성격유형의 토대를 도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면모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례를 《삼국지》와 《삼국지연의》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한 관우의 성격유형이 지니는 장점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단점이 어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역시 《삼국지연의》 및 관련 《사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3.1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특징

관우는 유비 진영 최고의 장수로 '만인지적(萬人之敵)'이라 불렸던 뛰어난

무공과 ‘충의’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굳은 심지로 오늘날까지 가장 인기 있는 삼국지 인물 중 하나이다.

관우는 처음 유비의 휘하로 들어가게 된 뒤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변변한 기반조차 지니지 못했던 유비의 진영에서 주축 장수로 큰 역할을 한다. 보통의 신하 입장에서 자신의 주군이 다른 군웅들을 전전하며 의탁하는 모습을 지켜 보는 심사는 가히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우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내면서 유비와 평생을 함께 했다. 특히 조조가 관우를 매우 중히 여겨 그를 사로잡아 장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회유를 하였으나 관우는

『나는 유장군(유비)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그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공을 세워 조조에게 보답한 뒤에 떠날 것입니다.』(삼국지 촉서 관우전, 이하 본전)』

라고 말하며 유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관우의 성격을 대변하는 가장 단적인 표현은 바로 ‘자존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우는 자신이 유비를 따라 하내(河內) 전역을 유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예와 자신이 따르는 주군에 대한 믿음과 자존심이 매우 강고하였다. 이는 일면 오랜 기간의 유랑 생활을 버티어 낸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꺾일 줄 모르는 자존심은 결국 여몽의 계책에 휘말려 형주를 잃고,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관우는 자존심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연의》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관운장이 소리를 높여 꾸짖는다. “눈이 푸른 어린아이에다 수염이 붉은 쥐 같은 자야. 나는 유황숙 어른과 도원에서 의를 맺고 한나라 황실을 붙들어 일으키기로 맹세했는데, 어찌 나라를 반역한 너 같은 역적과 손을 잡으리요. 내 이번에 너희들의 간특한 계책에 잘못 빠져들었으니 죽을 따름이라. 무슨 여러 말 할 것 있으리요.”』(삼국지연의 제 77회)』

와 같이 나타나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결연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관우는 내향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향형에서는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한 것에 의거해서 사물을 본다. 내향적인 의식의 태도에도 물론 외적인 조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만 언제나 그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것은 주관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관우의 경우 유비의 휘하에 들어 온 후 죽을 때까지 한실 부흥과 유비에게 충성이라는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답답하다 싶으리만큼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태도라든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모습 등에서 내향형의 특징을 뚜렷히 보여 주고 있다.

관우는 유비 휘하의 초기 시절, 즉 서서(徐庶)나 제갈량 등의 군사가 영입되기 전 유비의 휘하에서 군사(軍師)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는 관우가 무용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략도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관우는 유비가 서천(西川)으로 향한 뒤 약 6년여 간 형주(荊州)를 혼자서 지켜왔다. 이는 촉나라와 오나라 간의 동맹을 염두에 두더라도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졌던 당시의 형국에서에서 쉽지 않은 역할이었다. 결국 그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은 호승심이 일을 그르쳐 끝내 형주를 잃게 되었으나 그 전까지 관우가 형주를 오랜기간 잘 지켜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의》에서는 형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동오는 노숙과 여몽이 꾀를 내어 연회를 빌미로 관우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관우가 이를 대변에 눈치채고 그들의 계책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를 《연의》 상에서는 ‘단도부회(單刀赴會)’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왜 그들 속을 모르겠느냐. 이는 제갈근이 돌아가서 손권에게 관운장이 세 군을 내주지 않는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이 군사를 육구로 주둔시키고 나를 연회에 초청하여 형주 땅을 반환하라고 독촉할 작정인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비겁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내일 나는 혼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수행원 10여 명만 데리고 칼 하나만 들고 연회에 나아가. 노숙이 어떻게 나

를 대하는가 보리라.”(중략)』《삼국지연의 제 66회 》

와 같이 오나라의 계책을 꿰뚫어 보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관우는 사고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의 내향적인 성향과 결부지어 보았을 때 내향적 사고형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내향적 사고형의 성격적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사고 판단기준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이념이나 관념을 중시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며, 마지막으로 성향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치밀하여 매사에 빈틈없이 일처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관우에게 대입시켜보면 그는 그야말로 강기(剛氣)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자신만의 신념을 중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만의 생각을 너무 중시하다보니 개혁적인 성향이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과 달리 첫 번째 내용이야말로 관우를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격 유형 상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면모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떠한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갖고 이를 견지하였을까? 우선 첫 번째로 특정 계층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사고방식을 유추해볼 수가 있다.

『(전략) 관우는 병사들에게는 잘 대해주었으나 사대부에게는 교만했고, 장비는 군자를 친애하고 공경했으나 소인은 공홀히 여기지 않았다. (후략)』《삼국지 촉서 장비전》

관우의 정확한 출신 성분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앞서 인용된 《장비전》의 내용을 볼 때, 관우는 숭문(崇文)보다는 상무(尙武)의 가치관이 강한 인물임을 짐작케 한다. 관우가 자신의 재주, 특히 용무(用武)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그가 무략(武略) 지향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관우는 난세를 타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풍속을 교화시키고 사람을 깨우치게 만드는 학행보다는 적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무력이라 여겼

다. 따라서 이에 가장 요구되는 인재는 고상하고 우아한 품행에 경학에도 밝은 선비보다는 위용(威容)과 담략을 갖춘 무인이라 본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잘 대변한다는 듯이 마침 《연의》에서도 관우의 이러한 면모는 상반되게 잘 드러난다.

『(전략) 이튿날, 장료는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 성문을 공격한다. 관운장은 성 위에서 굽어보며 묻는다. “귀공은 거동과 풍채가 비범하거늘, 어째서 도둑놈에게 몸을 맡기고 있소?” 장료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못한다. 관운장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게는 충의의 기상이 있구나.’ 짐작하고 더 이상 꾸짖지도,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다.(중략) 장비가 적군을 뒤쫓아 가는 것을 관운장은 급히 성안으로 불러들였다. 장비는 돌아와서 투덜댄다. “적군이 겁을 먹고 내빼는데, 왜 뒤쫓지 말라는 거요?” 관운장이 타이른다. “장료의 무예는 너와 나만 못하지 않으나, 내가 바른 말을 했더니 느낀 바가 있는지 후회하는 기색이더라. 그래서 장료가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지, 겁이 나서 내빼는 건 아니다.”(후략)』《삼국지연의 제 18회》

관우가 유비를 옹위하고 여포와 교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장료와 처음 마주친 장면이다. 장료의 거동과 풍채에 비범함을 느낀 그는 은근한 말투로 여포와 같은 의롭지 못한 자를 어찌하여 섬기느지를 질타하였고 이에 장료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자 관우는 장료를 충의의 기상이 있다고 평가를 내린다. 장료와 싸우려던 행동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장료를 추격하려는 장비를 말리면서 장료의 무예가 출중하다고 치켜세우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훗날 여포가 패망하면서 장료는 조조의 포로가 되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관우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조조에게 몸소 사면을 주청하였고 관우의 이러한 진정성에 조조는 생각을 바꿔 장료를 기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고자 삼고초려를 하는 장면에서 관우가 보인 행동은 어떠했는가?

『(전략) 관운장이 말한다. “형님이 두 번이나 그를 찾아갔으니, 그만하면 지나친

예의를 베풀 것입니다. 생각건대 제갈량은 공연히 이름만 높고 실은 배운 것이 없어서 일부러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찌려고 그런 자에게 혹하셨습니까?” (후략)『삼국지연의 제 38회』

예로부터 지존(至尊)의 자리에 있는 자가 대현(大賢)을 얻고자 몇 번이나 찾아가는 일은 그만큼 인재를 후대한다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남기는 좋은 마케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유비 역시 사마휘(司馬徽), 서서 등의 추천으로 인지하게 된 제갈량을 얻고자 삼고(三顧)의 예(禮)를 다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유비의 첫 번째 방문은 그냥 넘어 갔지만 두 번째 방문에는 내심 불만을 품었다. 세 번째 방문을 행하려고 할 때 관우는 유비에게 두 번의 방문이면 지나친 예의를 베풀 것이니 그만하면 족하다고 은근히 불만을 터뜨린다. 아울러 길이 엇갈려 서로가 만나지 못한 상황을 일컬어 제갈량이 명성만 있는 선비일 뿐 실제로는 실력이 없어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업신여기기에 이른다. 이는 확실히 장료의 구명을 위해 조조에게 몸소 머리를 굽히는 때와는 상반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유비가 제갈량과의 친분을 날로 깊게 쌓아가자 이에 불쾌해하는 태도라던가 하후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新野)를 향해 진격할 때 이를 막는 일에 있어서 제갈량이 작전을 지휘하게 되자 관우가 이를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장비가 분노하게끔 은근히 부채질하는 태도 등은 그가 평소 사대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리에 대한 그의 행동양식에서 그의 성격유형 상의 또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관우는 《좌전(左傳)》을 좋아하여 대략적으로 암송하여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본전, 배송지 주, 강표전》

《연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관우의 가치관은 주로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이에

걸맞추어 오죽하면 관우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까지도 한 손에는 그의 무기인 청룡언월도가, 다른 한 손에는 《춘추》가 들려져 있을 정도이다. 《연의》는 푸줏간 업자인 장비와는 달리 관우를 서당 훈장으로 등장시켜 나름 그가 유가적 소양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그가 망명자의 신세에 처하게 된 배경을 고향에서 토호(土豪)의 횡포를 보고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드러내 줌으로써 의기가 넘치는 관우의 면모를 한층 더 부각해 준다. 비록 《연의》에서 묘사된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실제의 관우도 《춘추》와 많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는 《춘추삼전(春秋三傳)》¹¹⁾ 중 좌전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을 항상 암송하고 다니면서 입에서 구절을 술술 읊을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좌전을 좋아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그런 점에서 《강표전》의 기록은 관우가 여느 사대부와 같은 유가적 소양이 있는지까지 확인시켜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가 대의명분에 관한 역사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방증케 한다. 이런 그가 춘추의 대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살펴보자.

『(전략) “첫째는 내가 유황숙과 맹세할 때 한나라를 바로잡기로 했으니, 나는 한나라 황제께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는 두 형수께 유황숙의 녹을 주어 생활하는 데 조금도 군색함이 없게 하되 상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그 문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할 것이며, 셋째는 유황숙이 계시는 곳만 알면 천 리건 만리건 간에 곧 떠나가도록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항복하지 않으리니, 그대는 가서 알아보고 속히 회답하십시오.” (후략)』《삼국지연의 제 25회》

이는 《연의》에서 조조에게 투항하는 상황인데, 관우는 상기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약조로 내걸며 승낙을 받은 연후에 투항을 한다. 이를 유가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적에게 굴복하지

11) 《춘추삼전》은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좌씨전(左氏傳)》을 통칭하는 말로 이는 공자가 선악을 논하고 명분과 대의를 밝혀, 천하 후세에 존왕(尊王)의 길을 가르치고자 집필한 역사서인 《춘추》에 대한 해석본이다. 《공양전》《곡량전》은 경서의 해석과 이해에 주력한 반면에 《좌씨전》은 기사(記事)에 주력한 것으로 편년체 역사서로서의 의미가 컸다.

말 것을 주문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관우의 행동은 어쨌든 배신이고, 관우는 회색분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후대에 관우가 충의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연의》에서 관우가 보여주는 상황이 기존의 유가적 관점보다 더 광의적이고 유연성을 띠다보니 현실에 더 적절했음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충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유비에 대한 충의와 더불어 항장으로써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을 했음에도 자신을 받아줬던 조조에 대한 보답을 하고 떠났던 점에서 관우의 성격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된다.

『장료가 조조에게 고백하고자 하였으나 조조가 관우를 죽일까 염려스러웠고, 고백하지 않자니 주군을 섬기는 도리가 아닌지라 통탄하며 말했다. “주공은 주군이요, 관우는 형제일 뿐이다.” 마침내 조조에게 고백하였다. 조조가 말했다. “주군을 섬김에 그 근본을 잊지 않았으니 천하에서 가장 의로운 선비요. 어느 때 그를 갈 것으로 보이오?” 장료가 말했다. “관우는 주공의 은혜를 받았으니 반드시 보답했다는 것을 드러낸 뒤에야 갈 것입니다.”』《본전, 배송지 주, 부자》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한 후 조조와의 관계는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은의(恩義)관계가 성립한다. 관우는 조조에게 계속 머물 생각이 없었고 조조 역시 이를 알고 장료에게 속마음을 떠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과연 조조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고, 장료의 말처럼 관우는 반드시 조조에 대한 은혜를 갚아 의리를 보인 연후에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전쟁터에서 안락을 참살하는 공로를 세운 것으로 이미 조조에게 보답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미련 없이 조조를 떠날 수 있던 것이다.¹²⁾

그러나 조조에게 은공을 갚고 떠남으로써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

12) 배송지는 조조가 떠나는 관우를 추격하지 않아 관우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도왔으니 이는 가히 패왕의 마음이요, 아름다운 바라고 조조를 칭찬했다. 비록 《본전》에서는 관우의 투항에 관한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조조가 귀부할 마음이 없는 관우를 살려주어 은의를 베풀고, 또 유비에게 가게 해준 점을 보면 실제로도 《연의》에서 묘사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했을 법한 관우의 의는 몇 해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으니 상황은 적벽대전 직후 조조가 패주할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

『(전략) “옛날에 내가 승상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으나 이미 그 당시에 안량과 문추를 참하여 백마 땅에서의 위기를 풀어드렸으니, 그것으로도 은혜는 갚은 셈입니다. 오늘은 사정으로 공사를 폐할 수 없습니다.” (중략) 관운장은 원래 의리를 태산보다도 무겁게 생각하는 장수였다. 옛날에 조조에게서 많은 은혜를 입은 일과, 그 뒤에 조조를 뿌리치고 떠나오면서 다섯 관소를 지날 때마다 길을 막는 조조의 장수들을 참했던 일이 생각나니, 어찌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더구나 조조의 군사들을 보니 모두가 겁을 먹고 울상이 되어 있었다. 관운장은 한 가닥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말을 돌려 세우더니, 자기가 거느리고 온 수하 군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라.” 그 말은 조조를 살려 보내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순간, 조조는 모든 장수들과 함께 일제히 말을 달려 달아난다. (중략) 관운장은 장료를 보자 옛날에 서로 친하게 지냈던 가지가지 일이 또 생각나서, 길게 탄식하고 외친다. “속히 내 앞에서 없어지거라!” 이리하여 조조의 군사들은 다 관운장 앞을 무사히 지나서 달아났다. (후략)』《삼국지연의 제 50회》

이른바 관우를 만고의 의절(義絶)로 칭송받게 한 화용도(華容道) 사건은 관우가 조조의 퇴각로를 미리 차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적벽(赤壁)에서 대패한 조조는 여러 번 북병을 만나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군세를 잃고 여남은 패잔병만을 데리고 겨우겨우 도주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지막 퇴로였던 화용도에서 북병으로 둔을 치고 있던 관우를 만나게 되었고 조조는 관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된다.

출전하기 전에는 조조를 놓아줄까 염려하는 제갈량에게 군령장까지 쓰면서 지난날 이미 조조에 대한 은의를 갚았으니 꺼릴 것이 없다고 다짐했건만 관우는 지난날의 은의를 잊지 못하여 조조를 비롯하여 장료, 그리고 여타 장병들까지 모두 놓아주었다. 결국 자신이 중시하는 의리관계로 인해 군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후대의 논자들의 공과 사 혹은 충과 의의 대립이라는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볼 때 그는 군법이라는 객체를 제쳐두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실현

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관념을 매우 중시하고 이를 확고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관우는 자신의 가치관을 매우 중시하고 이를 전적으로 자신의 사고 판단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그는 내향적 사고형의 특징 중 첫 번째 내용이 유별나게 강했기에 이러한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3.2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장점

내향적 사고형이 흔히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이성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으로 치밀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관우에게 대입시켜보면 그가 유비를 따라 오랫동안 방랑의 세월을 보냈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할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었다보니 성격유형 상의 장점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서 성격유형 상의 특징을 언급할 때 그 요소로 제시한 개혁적인 성향이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태도가 과연 관우에게 부합될만하다고 볼 수 있는가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그나마 그의 성격유형 상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조조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던 허전(許田) 사냥터 사건에서 관우가 취하려던 행보만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다 말고 대경실색했다. 유현덕의 바로 뒤에 있던 관운장은 이 광경을 보자, 분기탱천하여 와잠미(臥蠶眉, 누에 같은 눈썹)를 곧추세우고 단봉안(丹鳳眼, 봉새처럼 찢어진 눈)을 부릅뜨며 칼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니, 장차 말을 달려 나가 조조를 참할 자세였다.(중략) 관운장은 유현덕에게 묻는

다. “역적 조조가 임금을 업신여길새 제가 조조를 죽여 나라의 피해를 덜려 했는데, 형님은 어찌서 말리셨습니까?” (중략) 관운장은 꾸넘한다. “오늘 역적을 죽이지 않았으니 다음날에 반드시 국가의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삼국지연의 제 20 회』

건안 4년 199년 여포를 궤멸시킨 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헌제와 백관들을 대동하여 허도 교외의 허전(許田)에서 사냥을 하였다. 사냥에서 헌제는 연달아 세 번이나 사슴을 향해 활을 쏘았지만 잘 맞추지 못하자 조조에게 순서를 넘겼는데 조조는 헌제의 활과 화살을 빌려 사슴을 쏘아 명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한 백관들은 사슴의 몸에 박혀 있는 햇살에 반짝이는 황금빛 화살촉을 보고 헌제가 맞힌 줄 알고 만세를 불렀지만 오히려 조조가 말을 몰아 천자 앞으로 나와 만세 하례를 받는 무례한 행동을 취한다. 이에 관우는 분기탱천하여 조조를 살해하려 했으나 유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물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당시 관우가 조조를 해하려 들었을 경우 만약 성공했다 할지라도 본인의 목숨은 물론 유비를 위시한 세력의 목숨 또한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관우의 행동은 현실에 구애받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우의 면모는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만약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면 그게 바로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훗날 번성(樊城) 전투에서 관우가 맹렬한 기세로 복진을 도모했으며 그 위세에 눌린 조조가 천도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실은 관우의 이러한 성격이 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일부의 사례이긴 하나 바로 그의 성격유형 상의 장점의 발현인 것이다.

3.3 내향적 사고형으로 본 인물 관우의 단점

내향적 사고형의 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유형의 인물이 흔히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첫 번째로 맹목적인 헌신이나 계산이 들어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 타인으로 하여금 편협하다는 인상을 받게 하거나, 두 번째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관우에게 대입해보면 첫 번째 내용인 맹목적인 헌신이나 계산이 들어맞지 않는 행동으로 실패를 초래한 경우가 그에게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맹목적인 헌신으로 인해 실패가 초래된 대표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촉오 동맹세력의 상대방 주군인 손권이 사신을 보내 자녀 청혼을 함에 모멸감을 주며 이를 거절하여 첨예한 갈등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형주를 잃게 되는 단초가 되는 사건일 것이다.

그가 북진을 개시하면서 자신과 불화가 있는 미방(糜芳)과 부사인(傅士仁)에게 후방을 맡겨 그들의 배신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참극으로 돌아오게 만든 꼴이 되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산에 들어맞지 않은 행동을 취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성격유형 상의 단점이 패착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번성전투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당초 관우는 많은 위험성을 수반한 채 북진을 개시한 상황이었다. 물론 북진 직전에 남양의 호족 후음(侯音)이 관우에게 귀부하려고 정변을 일으킨 바도 있었고, 허도 주변에도 관우에게 투항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조조가 천도를 생각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만큼 좋은 징조도 있었지만 형주를 노리는 동맹세력 동오와의 첨예한 갈등과 후방 방비에 대한 인선의 실패 등 좋지 못한 징조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그 스스로도 북진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성격적인 단점을 보였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맹목적인 헌신으로 인해 융통성을 부릴 줄 모르는 면모라 할 수 있다.

『관운장은 발언 대로하여 “범의 딸을 어찌 개에게 시집보낼 수 있으리요. 네 동생(제갈량)의 안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장 참할 것이니, 여러 말 말라.”』《삼국지연의 제 73회》

이는 손권의 사신 제갈근이 관우를 찾아가 손권의 아들과 관우의 딸과의 혼인을 주선하자 관우가 제갈근에게 내뱉은 말로, 관우의 지나친 호승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의 형주 상황을 살펴보면 적벽대전을 기점으로 촉·오 동맹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요소가 내재해 있었다. 실제로 건안 20년 215년 손권이 유비가 이미 익주(益州)를 손에 넣었다고 듣고 사신을 보내 형주(荊州)를 돌려달라 한다. 이에 유비가 “양주(涼州)를 얻고 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 답하자 손권이 분노하여 곧 여몽을 보내 형주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유비는 5만 군사를 이끌고 공안(公安)으로 내려오고 관우는 익양(益陽)으로 진군하게 했으나 이때에 조조가 한중(漢中)을 평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유비는 손권과 다시 동맹을 복원한다. 즉 형주를 나누어 상수(湘水)를 경계로 강하(江夏), 장사(長沙), 계양(桂陽)을 동쪽 오나라로 하고 남군(南郡), 영릉(寧陵), 무릉(武陵)을 서쪽 촉나라로 하는 선에서 형주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일단 봉합된 바 있었다. 그러나 동오의 입장에서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였으며, 자신이 점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형주를 언제까지나 촉나라의 세력권에 둘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 와중에 형주를 지키고 있는 관우가 손권의 사신에게 그들의 주군을 일러 ‘개’라는 표현을 쓰자 동오에서는 형주를 공격할 계획을 더욱 촉발시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후방의 위기를 크게 개의치 않고 지나치게 북진의 공격 일변도로 나서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관우가 처음 군을 출병하여 번성을 포위했을 때 꿈에 멧돼지가 (관우의) 발을 물으니 관우가 아들 관평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노쇠했나 보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본전, 배송지 주, 촉기》

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소위 ‘만부부당(萬夫不當)’으로 일컬어지는 관우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심약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계속 복진을 향한 번성 공격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유비의 한실재흥의 대업을 실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는 사명감에만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작 형주의 배후에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너무 등한시했음을 보여준다.

즉 죽음을 불사하는 결연한 불퇴전의 관공(關公)의 모습에는 후세인들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제갈량이 북벌(北伐)에 임할 때 경우에 따라서 후퇴를 하며 재기를 노렸던 것을 반추해 보게 된다. 특히 《연의》에서 제갈량이 서천으로 진군하며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며 당부하기를 북으로 조조를 막고 동으로 손권과 화친(北拒曹操 東和孫權)하라는 대목에 이르면 관우는 한실부흥에 지나치게 집착했을 뿐 전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훗날 관우가 겪게 되는 형주가 함몰되고 그가 최후까지 맞게 된 것은 이미 그 자신의 성격유형 상의 단점을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고야 마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예정된 패착이었던 것이다.

4. 결론

총체적으로 평가하건대 관우는 유비를 주군으로 뜻을 합쳐 한실부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을 섰던 인물로 그는 전적으로 유비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인물이었다. 이 점 때문에 관우의 인생 방향이 자신보다는 외부나 객체, 즉 한조부흥이나 유비의 패업이란 측면에 있다 보니 그를 얼핏 외향적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관우는 의로움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이 있어 이를 일평생 견지하였으며, 또한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을 자신의 무용에서 찾으려 했던 점을 보면 그의 사고 판단기준은 외부보다는 자신, 즉 내부에 있었다고

봄이 더욱 타당하게 보여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날 정도로 강했던 행동양식은 그가 얼마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매우 중시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면모를 통해 관우를 성격유형으로 보면 내향적 사고형의 인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의 삶은 유비의 오랜 여러 세력예의 의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격유형 상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다지 발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성격유형 상의 특징 중 하나였던 자신의 관념, 신념 등을 중시하는 것이 투철하여 이 점이 너무 부각되어 한편으로는 또 다른 특징이나 성격유형 상의 장점 등이 아무래도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관우와 유사한 성격유형의 내향적 사고형의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실패를 초래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진 적지 않은 소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우의 철저한 주도아래 치열하게 치러졌던 중원회복을 향한 창(窓)을 여는 번성전투는 관우의 성격유형 상의 장점인 스스로의 행동은 현실에 구애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는 강한 추진력 이것이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하며 개혁을 도모하게 되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관우를 실패의 나락에 빠지게 하는 명암이 교차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했다. 번성전투의 초기 전황만 하더라도 뚜렷하게 부각된 관우의 성격유형 상의 장점으로 말미암아 관우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됐으나 전황이 점점 장기대치국면이 되면서 전투의 중, 후기부터는 맹목적인 헌신이나 계산에 들어맞지 않는 행동 등 소위 내향적 사고형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스스로 제어 못하고 마는 것은 그의 실패의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이 되고야 만다.

결국 관우는 자신의 성격유형인 내향적 사고형의 특징으로 투철하게 발현되어 이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어 “만고의 의절(義絶)”로 오늘날과 같은 후세에게까지 추앙받을 수 있는 인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성격의 특징의 지나친 투철함으로 스스로의 패착을 초래한 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번성전투 사례처럼 장점이 발현된 사례를 본인을 추락시킬 정도의 실패로 결말

을 짓게 만들었다. 이처럼 특정 사례에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작용했다는 것은 곧 관우가 자신의 성격유형 상의 특징을 제대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칼 용의 성격유형론을 인물 논의의 분석틀로 하여 통해 관우에 대한 《삼국지》와 《삼국지연의》의 내용에서 다양한 자료에서 드러난 그의 갖가지 언행과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인물 관우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고의 분석은 인물의 성격을 바라봄에 있어 적합성 있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관우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파악해 본 것이나 이는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인물론 연구 바탕을 마련하는 단초적인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 김종석,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사례 연구: 박정희·김영삼 대통령을 대상으로, 《행정논총》 vol. 48. pp.113-14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 김태형,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역사의 아침, 2009.
- 김태형, 《심리학, 삼국지를 말하다》, 추수밭, 2010.
- 나채훈, 《관우의 의리론》, 추수밭, 2012.
- 남덕현, 영웅을 넘어 신이 된 사람, 관우, 현자의 마을, 2014.
- 이부영 편, 의학개론(I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 167.
- 이부영, 개정증보판,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 A. Jape, 용의 생애와 사상 - 기억과 꿈과 회상들 -, 이기춘, 김성민 역, 현대사상사, 1995.
- A. Casement, 칼 용, 박현순, 이창인 옮김, 학지사, 1995.
- C.G. Jung, *Psychologische Typen*, G.W. Bd. 6, 1979.
- C.G. Jung, *Psychological Types*, London and Henley : Routledge & Kegan Paul, 1979.
- C.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융 기본 저작집(1) : 정신요

법의 기본 문제》, 2007.

Harold, D.L.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62.

Loomis, M., A New perspective of Jung's typology, the Singer-Loomis Inventory of Personality, *J. Analyt. Psychol.*, 27, 1982.

M. -L. von Franz, *The Inferior Function, Lectures on Jung's Typology*, spring Publications, New York, 1971.

S. Cain, 김우열 옮김, *Quiet*, 2012.

W. McGuire, et al.,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ume 6, London and Henley, 1977.

<中文提要>

可以更加妥當的顯示他的思考判斷基準不在於外部而在於自身就是內部。而且對於自身的自豪感格外強的行動模式也顯示他非常重視自己的想法。

通過這些方面的觀察從性格類型可以認定關羽是內向思考型人物。

完全在關羽的主導下激烈進行的打開恢夏中原之窗的樊城之戰突出他的性格類型上的長處-就是不被現實拘束為了實現自己的目標而推進的強烈的開展力，這種開展力在樊城之戰里起着積極的作用，可以被認為是謀求改革的代表事例，但又是使他落入失敗深淵的交叉明暗的代表事例。

樊城之戰的初期戰況因顯著刻畫了關羽的性格類型上的長處，戰況往對關羽有利的局面展開，但隨着進入長期對峙局面，從戰爭的中，後期會顯示盲目的獻身或不合於計算的缺乏靈活性的行動等所謂的內向思考型的短處，因為自己沒能控制這些短處，使短處起了關羽失敗的決定性催化劑作用。

關鍵語：性格類型，內向思考型，思考判斷基準，行動模式，長處，短處，自豪感，推進力，盲目的獻身，靈活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18.	2015. 8. 7.	2015. 8. 10.	2015. 8. 31.